

2011. 8. 15 제269호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2011. 8. 15 제269호

문화·디자인

1. 우울증 환자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문화유산 복원사업 지원 (영국 켄트주)
(토막기사) 도시 역사문화자료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검색서비스 제공 (미국 시카고市)

산업·경제

2.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쇼핑물품 보관센터’ 운영 (영국 리즈市)
3.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간 지식 이전을 통한 기업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시행 (베를린)

건강·복지

4. 저소득·실업률이 높은 흑인 및 남미계 청년 고용촉진계획 발표 (뉴욕)
(토막기사) 생활보호 대상 세대에 냉방기기 설치 긴급 지원 (도쿄)

행정·재정

5. 시민이 도시정책을 제안하거나 참여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 ‘Change by Us’ 웹사이트 개설 (뉴욕)
(토막기사) 2012년 사전예산안 발표 (뉴욕)

방재·안전

- (토막기사) 휴대전화를 통해 긴급재해 정보 제공 (일본 교토市)

도시환경

6. '지속 가능한 건축사업 계약자' 지정 프로그램 시행 (뉴욕)
 7. 지역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저탄소 경제 구역에 수소충전소 설치 (영국 스윈던市)
 8. 도시생태계의 건강성을 상징하는 벌 보전에 기여해 '벌 지킴이 도시'로 선정 (영국 글로스터市)
 9. 도시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 전체를 정원도시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 추진 (싱가포르)
- (토막기사) 친환경·고효율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는 법률 시행 (미국 뉴욕州)
- (토막기사) 도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업풍경 육성지구' 지정 (도쿄)

도시교통

10. 보행 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 보행교통 개선전략 수립 (베를린)
- (토막기사)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실시간 교통정보시스템 시행 (뉴욕)
- (토막기사) 자전거 통근자는 대폭 증가한 반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대폭 감소 (뉴욕)
-

문화 · 디자인

1. 우울증 환자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문화유산 복원사업 지원 (영국 켄트주)

○ 런던 남부에 위치한 켄트(Kent)주는 우울증이 있거나 심각한 시민들을 오래된 배를 복원하는 사업에 참여시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지원함. 한 시민이 오래된 배 오션카발리에호(號)를 자원봉사를 통해 복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을 켄트주 등 공공기관이 지원함. 복원이 완료되면 오션카발리에호는 지역에 있는 메드웨이(Medway)강을 유람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계획임.

- 이 복원사업은 75세인 긴(Gynn) 여사가 오션카발리에호를 우연한 기회에 구입하면서 시작됨. 긴 여사는 오래된 배를 수리하거나 복원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울증이나 신경쇠약 등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회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함.

· 물이 가득 차 있는 배를 복원하는 데에는 청소와 물 빼기, 방수 페인트를 다시 바르는 일, 배를 꾸미고 기계를 점검하는 일 등 다양한 봉사기회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복원사업을 시작함.

· 우울증을 앓고 있는 시민들은 사회와 접촉을 꺼리고 혼자 지내려는 경향이 있어 자칫 고립된 삶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자원봉사를 통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 성취감을 느끼고,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적응훈련을 하며,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

게 되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됨. 실제로 복원사업에 참여한 우울증 환자의 경우 증세가 많이 완화되었다고 밝힘.

- 켄트주는 이미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원사업이라 직접적으로 사업을 주도하기보다는 옆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참여함. 2011년 1월에 시작된 이 복원사업은 켄트주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도 참여해 8개월간 진행 중임.
 - 켄트주는 복원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서류 작성을 적극 돕고 있음. 복권기금을 통해 복원에 필요한 예산 2만 파운드(약 3500만 원)를 조달하기 위해 예산 지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임.
-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켄트와 메드웨이 지역에서 우울증을 호소한 시민이 2만 2000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어떤 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켄트와 메드웨이 지역 인구의 10%에 달하는 약 12만 1000명이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음.
 - 우울증 증가 추세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예를 들어 우울증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야기하기 꺼리는 사람이 많은 만큼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담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 체험,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문화유산 복원사업에 대한 참여 유도도 이러한 프로그램의 일환임.

(www.bbc.co.uk/news/uk-england-kent-14371138)

(www.bbc.co.uk/news/uk-england-kent-14214960)

도시 역사문화자료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검색서비스 제공 (미국 시카고市)

- 미국 시카고 지역에 있는 일리노이-시카고 대학을 비롯한 지역 대학과 박물관, 공공도서관 등이 공동으로 시카고 역사자료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주요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카고의 역사와 문화, 사회 변천사 관련 자료를 일반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함.
- 시카고 역사자료 웹 포털은 학술단체와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시카고 역사 관련 자료를 주제별로 묶어 전체 목록을 공개하고, 원하는 자료를 어떻게 열람해야 하는지를 안내함. 또한 향후 시카고의 모든 역사자료 및 문헌을 디지털화해 보관할 계획임.

(www.suntimes.com/lifestyles/6842039-423/chicago-history-just-a-click-away-team-developing-web-portal-on-city.html)

산 업 · 경 제

2.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쇼핑물품 보관센터’ 운영 (영국 리즈市)

- 영국 리즈(Leeds)市 도심에 위치한 커크게이트 시장(Kirkgate Market)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고객이 구입한 물품을 무료로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쇼핑물품 보관센터’를 운영할 예정임.
- 市는 명품 브랜드에서 중저가 브랜드까지 다양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권을 도심에 조성해 잉글랜드 중부권의 쇼핑·관광 중심지로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음. 쇼핑물품 보관센터는 구매한 물품을 무겁게 들고 다니는 불편을 해소해 관광객이 더 많은 물품을 편리하게 구입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설치했는데, 市도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함.

- 보관센터에서는 냉장보관이 가능하도록 해 음식이나 식재료를 사더라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함. 오전 8시부터 시장 입구에 위치한 안내데스크에 구매한 상품을 맡기고 표를 받은 뒤 오후 6시까지 다시 찾아가면 됨. 크고 무거운 물건의 경우 차에 바로 실을 수 있도록 해 최대한 소비자를 배려함.
- 보관센터가 들어설 경우 소비자가 크고 무거운 물품을 더 구매할 수 있어 상권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매주 18만 명에 이르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토대로 이 사업을 추진해왔음. 도시 외곽에 새로 들어서는 대형 쇼핑센터에 밀려 경쟁력을 잃을 것을 우려한 시장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이용자 의견을 청취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임.



【리즈 중심가에 위치한 커크게이트 시장 입구】

(www.bbc.co.uk/news/uk-england-leeds-14186445)

(www.yorkshireeveningpost.co.uk/news/latest-news/central-leeds/leeds_bosses_in_bid_to_lure_spenders_to_kirkgate_1_3592982)

3.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간 지식 이전을 통한 기업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시행 (베를린)

○ 베를린 기술재단은 2009년부터 베를린시가 시행한 ‘이전 보너스’(Transfer Bonus)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최근 발간함. 이전 보너스 프로그램은 종업원 250명 이하, 연매출 5000만 유로(약 76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결시켜 주고,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으로부터 새로운 지식 및 연구 성과를 쉽게 이전받아 이를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임.

- 베를린 기술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보너스 프로그램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됨. 시 소재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간 협력비율이 크게 증가해 현재 베를린의 대학과 연구소 연구원의 약 80%가 시 소재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 소재 중소기업의 약 50%도 연구기관과 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해 협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연구기관과 협업하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도 향후 협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이전 보너스 프로그램이 기업에는 신지식의 중요성을, 연구기관에는 지식의 실용화와 시장화 가능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는 계기를 부여하고, 나아가 이러한 협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임. 특히 미래 산업 분야에서 연구소와 기업 간의 협업이 성공적인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이 보고서는 기업과 연구기관 간 관심도의 차이도 밝힘. 연구기관과 기업 간 협력이 증대됨에 따라 연구기관에서는 자체 연구 성과의

경제성 측면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 반면, 기업은 기술 이전뿐 아니라 전문인력의 영입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해 긍정적인 효과로 들 수 있는 것은 베를린 소재 대학 졸업생의 50%가 지역 기업에 취업한 사실임.

-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준 결정적인 계기는 개인적인 대면 접촉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기업 관계자와 연구원이 직접 접촉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만남의 장를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함.

- 市는 이 보고서를 통해 이전 보너스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성과가 확인됨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기관과 기업의 다양한 관심과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www.berlin.de/sen/wtf/presse/archiv/20110718.1100.351533.html)

건 강 · 복 지

4. 저소득·실업률이 높은 흑인 및 남미계 청년 고용촉진계획 발표 (뉴욕)

- 뉴욕市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흑인 및 남미계 청년층의 저소득 비율은 백인이나 아시아계보다 50% 이상 높고, 실업률은 60% 이상 높으며, 고등학교 중퇴 비율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市는 도시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돕기 위한 고용촉진계획을 마련해 2011년 8월 1일 발표함.

-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뉴욕市뿐 아니라 미국 내 다른 대도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평등한 기회 제공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에 따라 뉴욕市는 흑인 및 남미계 등의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진출을 위한 전략계획을 5개 분야(교육, 멘토링, 고용, 사회정의, 건강·보건)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임.
- 市는 이번 전략계획안의 목표를 ① 학교교육에서 인종 간 학습 성취도의 차이를 줄이고, ② 고용에서 인종차별을 줄이며, ③ 흑인 및 남미계 청년층의 건강 및 보건을 보조하며, ④ 이들과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멘토를 확보하고, ⑤ 전과가 있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후원을 강화하는 데 두고 있음. 분야별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교육: 학교 중심의 흑인 및 남미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종합적인 조기교육 실시, 학업성취도 차이를 줄이기 위한 학교 차원의 노력, 흑인 및 남미계 출신 교사 고용 확대
 - 멘토링: NGO를 활용한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지역 내 학교 졸업생을 활용한 멘토링,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
 - 고용: 실질적인 고용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고용과 재교육 프로그램 간 연계 강화, 여름철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에 유색인종 청소년 참여 확대
 - 사회정의: 전과가 있는 흑인 및 남미계 청소년의 재교육 및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주거 등의 기본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후원
 - 건강·보건: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지속적인 저소득환경 및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정부 차원의 후원, 의료서비스 지원

- 市는 인종 간 소득격차의 문제가 사회 격차의 문제로 자리 잡아 온 현실을 인정하고 도시정부 차원의 장기계획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를 둬. 서울의 경우에도 향후 다문화 가정 및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문화 및 인종의 차이가 사회 및 소득,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www.nyc.gov/portal/site/nycgov/menuitem.c0935b9a57bb4ef3daf2f1c701c789a0/index.jsp?pagelD=mayor_press_release&catID=1194&doc_name=http%3A%2F%2Fwww.nyc.gov%2Fhtml%2Fom%2Fhtml%2F2011b%2Fpr283-11.html&cc=unused1978&rc=1194&ndi=1)

(www.nyc.gov/portal/site/nycgov/menuitem.b270a4a1d51bb3017bce0ed101c789a0/index.jsp?doc_name=/html/om/html/2011b/events_08.html)

생활보호 대상 세대에 냉방기기 설치 긴급 지원 (도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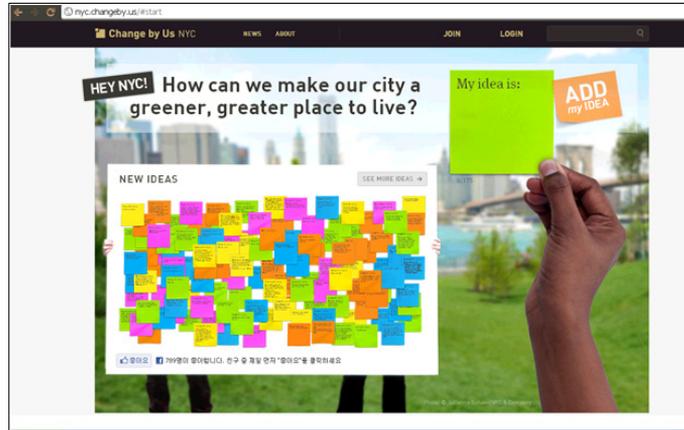
- 최근 일본에서는 기록적인 폭염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전력 부족으로 열사병에 걸려 사망하는 사람, 특히 고령자가 늘고 있음. 이에 도쿄都는 2011년 7월 19일 생활보호제도를 일부 고쳐 생활보호 대상 세대에 생활복지자금을 대출해줘 냉방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수입이 없어 대출조차 받기 힘든 가구가 발생하자, 8월 1일 긴급제안을 통해 이 제도를 재개정함.
-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냉방기기의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사가 확인한 사람이나 냉방장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생활보호 대상 세대에 냉방기기의 구입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함. 지원규모는 1회에 한해 가구당 최대 4만 엔(약 55만 원)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08/20181500.htm)

행정 · 재정

5. 시민이 도시정책을 제안하거나 참여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 'Change by Us' 웹사이트 개설 (뉴욕)

- 뉴욕시는 웹사이트 'Change by Us'를 개설해 시민이라면 누구나 새로운 도시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실제로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 더욱 살기 좋은 커뮤니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Change by Us NYC' 사이트는 록펠러재단 등의 후원을 받아 市가 운영함.
-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에 관한 계획 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이미 채택된 프로젝트에 팀원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음. 시민이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소규모 프로젝트는 지원자가 모이면 바로 시작할 수 있음.
 - 市는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만나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팀을 구성해 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과정 자체를 주도함으로써 시민 참여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도시정부 차원의 장기 지원방안과 운영방안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市는 이 사이트가 앞으로 풀뿌리 지도자를 창출해내는 매체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유관 전문가의 협조와 지원도 요청함. 앞으로는 중장기 도시계획에도 시민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반영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임.



【Change by Us NYC 홈페이지에서 시민 의견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시판】

(www.nyc.gov/portal/site/nycgov/menuitem.c0935b9a57bb4ef3daf2f1c701c789a0/index.jsp?pageID=mayor_press_release&catID=1194&doc_name=http%3A%2F%2Fwww.nyc.gov%2Fhtml%2Fom%2Fhtml%2F2011b%2Fdm_07-07-2011.html&cc=unused1978&rc=1194&ndi=1)

(nyc.changeby.us/about)

(nyc.changeby.us/#start)

2012년 사전예산안 발표 (뉴욕)

- 뉴욕시는 최근 2012년도 사전예산안을 발표함. 시는 세금 인상과 예산 삭감이 없으면 2012년도 예산의 경우 40억 5800만 달러(약 4조 91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힘. 시는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卍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향후 몇 년간 긴축재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함. 하지만 시는 卍정부로부터 충분히 지원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자체 예산 확보와 인력 감축, 서비스 축소와 같은 방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힘. 부문별 예산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도시경제: 2012년도 세입이 2011년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미국 내 타 도시 대비 시의 고용창출 속도가 빠르고, 2010년 기준 도시 방문객

수가 4870만 명에 달하며, 상업용 부동산 시세가 미국에서 가장 높아 장기적으로는 市 경제상황이 낙관적일 것으로 예측함.

- 교육: 연방정부는 2012년도 교육비를 10억 4000만 달러(약 1조 5000억 원) 삭감할 계획이며, 이는 교사 인건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市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교사인력 감축과 임금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사회보장 서비스 감소: 4억 300만 달러(약 4300억 원)에 육박하는 사회보장 서비스 역시 줄어들 전망이다. 주로 건강·보건 및 범죄 관련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사전예산안은 2012년도 경제상황을 간접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자료로, 연방정부와 州정부의 예산 삭감 또는 동결 정책에 따라 市 차원의 지속적인 긴축재정이 예측됨.

(www.nyc.gov/portal/site/nycgov/menuitem.c0935b9a57bb4ef3daf2f1c701c789a0/index.jsp?pagelD=mayor_press_release&catID=1194&doc_name=http%3A%2F%2Fwww.nyc.gov%2Fhtml%2Fom%2Fhtml%2F2011a%2Fpr055-11.html&cc=unused1978&rc=1194&ndi=1)

방 재 · 안 전

휴대전화를 통해 긴급재해 정보 제공 (일본 교토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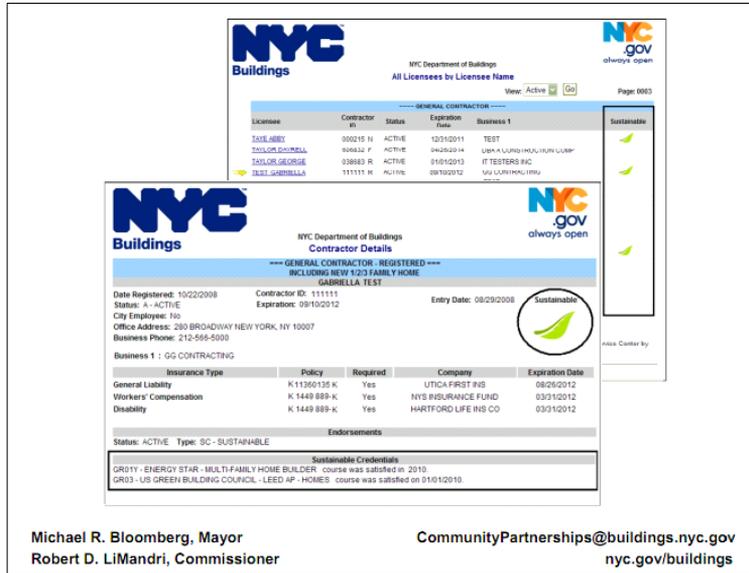
- 일본 교토市는 NTT 도코모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긴급속보 지역 문자서비스’를 도입함. 市는 이 서비스를 통해 지진이나 대형 화재가 발생할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긴급정보를 제공하게 됨.
- 이 서비스는 2011년 8월 10일 시작했으며, 대피 준비·권고·지시 등의 긴급정보를 제공함. 수신 가능한 휴대전화에 동시에 전송되는데, 정보이용료는 무료임. NTT 도코모 주식회사 이외에 다른 통신회사도 순차적으로 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임.

(www.city.kyoto.lg.jp/shobo/page/0000105155.html)

도 시 환 경

6. '지속 가능한 건축사업 계약자' 지정 프로그램 시행 (뉴욕)

- 뉴욕시는 지속 가능한 녹색기술을 활용해 건물을 설계·시공하는 사업자를 '지속 가능한 건축사업 계약자'로 지정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011년 7월 19일 발표함. 이 프로그램은 도시 내 건물을 대상으로 녹색기술을 도입하고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친환경기술을 보유한 사업자를 지정해 이를 장려하고자 함. 이 프로그램을 통해 건축주는 어떤 사업자가 어떤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욱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받게 됨.
 - 현재는 주택 건설업자를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배관공이나 전기기술자도 지속 가능한 계약자 목록에 포함될 예정임. 지속 가능한 계약자로 등록하려면 유관 분야 자격증 또는 인증서 소지자로서 시 건축국의 심사를 거쳐야 함.
 - 고급 건축디자인 전문가, 단독·공동주택 건축가, 녹색사업 전문가, 주택컨설턴트, LEED 주택·인테리어 설비 전문가 등의 자격이 있거나 인증을 받은 사업자 등이 이에 해당됨.



【'지속 가능한 건축사업 계약자' 등록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인증 화면】

(www.nyc.gov/html/dob/html/licenses/license_sustainable_contractor.shtml)

(www.nyc.gov/html/dob/downloads/pdf/sustainable_contractor_notice.pdf)

7. 지역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저탄소 경제 구역에 수소충전소 설치 (영국 스윈던市)

- 런던 서쪽에 위치한 스윈던市에 수소충전소가 영국에서 최초로 설치될 예정이다. 스윈던市는 중앙정부가 정한 저탄소 경제 구역(Low Carbon Economic Area)에 속한 도시로 잉글랜드 서남권 경제개발청, 수소연료 자동차 생산업체인 혼다社, 민관 협력을 통한 재개발기관인 포워드 스윈던(Forward Swindon)이 상호 협력해 수소연료 충전소를 유치함. 이는 자동차산업 입지를 최대한 활용해 지속 가능한 산업의 발전 토대를 닦았다는 데 의미가 있음.

- 수소연료 충전소는 세계적인 수소연료 차량 생산업체인 **혼다**사의 자동차 생산공장 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 기업과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2011년 9월부터 5년간 운영될 계획임.



【수소연료 충전소 모습】

- 충전소에는 수소연료로 움직이는 자동차, 버스, 기중기 등을 시범 운전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될 예정임. 市는 혼다사와 영국 굴지의 산업가스 공급업체인 BOC社 등의 지원을 받아 충전소 설치와 운영 노하우를 축적할 예정임.
 - 혼다사는 일본 내에서만 생산하던 수소연료 차량의 생산라인을 스윈던에도 설치할 계획이어서 스윈던이 청정산업의 또 다른 중심지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혼다사는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 자동차인 ‘Honda FCX Clarity’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함. 市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정기술과 친환경 교통시설 지원 정책을 市의 중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힘.
- 이번 사업은 지속 가능한 미래형 저탄소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영국 남부지역과 웨일스를 잇는 M4 고속도로를 수소연료 차량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수소 고속도로’로 조성하려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됨.

(www.bbc.co.uk/news/uk-england-wiltshire-14044316)

(www.forwardswindon.co.uk/ForBusiness/Projects/HydrogenHighwayRefuellingStation/Highdrogen-Highway-Refuelling-Station.aspx)

8. 도시생태계의 건강성을 상징하는 벌 보전에 기여해 ‘벌 지킴이 도시’로 선정 (영국 글로스터市)

○ 영국 글로스터市는 화단에 심는 식물의 종류와 심는 방식을 바꿔 예산도 절약하고 벌 보전에도 크게 기여해 ‘벌 지킴이 도시’로 선정됨. 현재 영국에서는 250여 종, 전 세계적으로 2만여 종이 넘는 벌이 있으나 개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다양한 식물의 수정과 확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벌 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 市는 꽃을 피우지 않는 녹색식물 모종을 사서 화단을 가꾸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꽃을 피우는 식물의 씨를 뿌려서 화단을 가꾸는 결과 400만 파운드(약 7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벌이 날아들 수 있는 꽃밭을 조성해 벌도 보전하는 효과를 봄.

· ‘벌 지킴이’(Bee Guardian) 제도는 종 다양성의 지표이자 환경 지킴이 역할을 하는 벌을 보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명예 상을 수여하는 제도로 민간단체가 주최함. 영국에서 지방도시가 벌 지킴이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시환경을 살리는 데 있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의 모범사례로 주목받음.

· 기존 화단에서 자라던 식물은 조경이 필요한 인근 지역의 화단으로 옮겨 심었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음. 벌에게 서식지를 제공하는 꽃 작물로는 제라늄과의 Meadow Flower가 선정

되었는데, 이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거나 위험성이 낮은 벌이 좋아하는 작물로 알려져 있음. 또한 이 작물은 모종을 심어 꾸준히 관리해야 했던 기존 녹색작물보다 관리가 쉽고, 화단 조성뿐 아니라 관리에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도 이전보다 적게 들어 예산 절감 효과도 큼. 市는 메도 플라워 꽃씨를 심어서 화단을 다시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벌 보전에 앞장서온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음.

- 경제학자와 과학자들에 따르면 벌처럼 수정을 도와주는 동물과 곤충의 경제적 가치가 영국에서는 연간 4억 4000만 파운드(약 7660억 원)에 달함. 이는 영국 내 농업 수익의 13%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가치임. 이에 영국 정부는 1000만 파운드(약 1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벌 보전 사업을 펼치고 있음.

(www.bbc.co.uk/news/uk-england-gloucestershire-14191108)

(www.gloucester.gov.uk/YourCouncil/PressOffice/PressReleases/July2011/180711bee-hold.aspx)

(www.bbc.co.uk/news/uk-england-gloucestershire-11857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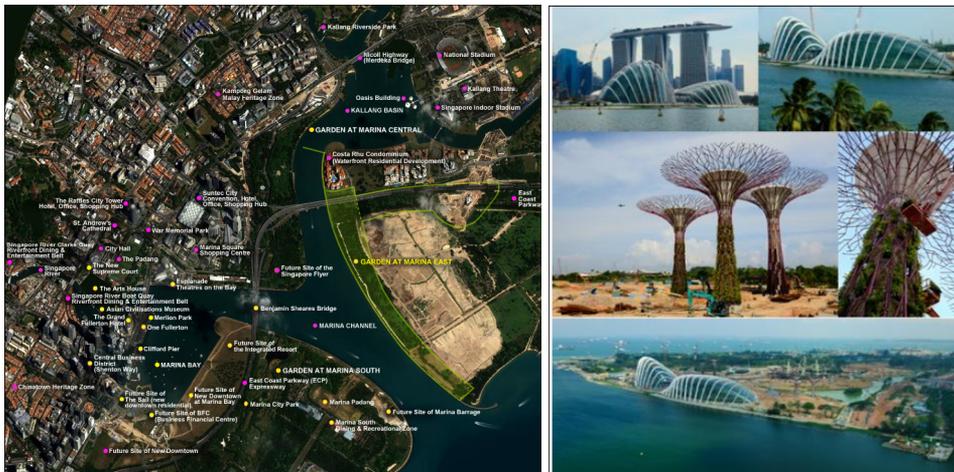
(www.bbc.co.uk/news/10371300)

9. 도시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 전체를 정원도시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 추진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도심의 녹지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도시 전체를 정글과 같은 다양한 동식물군이 존재하는 매력적인 정원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함. 먼저 싱가포르를 세계적인 열대정원 도시로 만들기 위해 ‘Marina Bay’에 공원을 조성함. 2007년 기존의 공원을 폐장한 후 새로

운 공원 조성 공사를 시작함. 2012년 6월에 개장하게 될 첫 번째 공원은 100만㎡ 규모로 총 10억 싱가포르 달러(약 8840억 원)가 투입됨.

- 싱가포르를 도시정원으로 가꾸기 위한 노력은 1970년대부터 계속되어 왔음. 싱가포르는 지형학적으로 적도에 근접해 있어 다양한 동식물군이 존재하는데 이를 활용해 활기찬 도시공간으로 만들고자 한 것임. 이 결과 최근 25년간 인구가 2배로 증가해 500만 명에 달했지만, 녹지공간은 오히려 도시 전체 면적의 1/3에서 1/2로 증가함. 싱가포르는 향후 10년간 도시공원 면적을 3300만㎡에서 4200만㎡까지 늘릴 계획임. 싱가포르는 잘 가꾸어진 녹색공간이 도시 전체의 경쟁력과 도시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새로운 공원이 조성되는 Marina Bay 지역(왼쪽), 이 공원에 설치될 철로 만든 줄기와 이곳에 자생하는 열대 식물군(오른쪽)】

- 이에 따라 도시 전체를 도시정원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고급인력을 흡수해 싱가포르를 21세기를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정책과 연계됨. 뛰어난 고급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매력지수가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임.

이러한 인식과 노력에 힘입어 ‘Mercer 2010’에 발표된 생활환경지수 평가에서 세계 28위를 기록했으며,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오사카, 도쿄, 홍콩 다음으로 매력적인 도시로 선정되기도 함.

(www.nytimes.com/2011/07/29/business/global/an-urban-jungle-for-the-21st-century.html?pagewanted=2&_r=1&ref=global)

(www.gardensbythebay.org.sg/?p=section&sub=article&articlegrppk=35)

친환경·고효율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는 법률 시행 (미국 뉴욕주)

– 미국 뉴욕주는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는 ‘파워 뉴욕 법안’(Power NY ACT)이 2011년 8월 4일 발효되었다고 발표함. 이 법안은 발전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방안과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설비에 대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On-Bill 상환 프로그램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함. 州당국은 이 법률안이 시행됨으로써 수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친환경 청정에너지의 생산이 늘 것으로 기대함.

- 미국 내에서 최초로 도입된 On-Bill 상환 프로그램은 보일러 등 저효율 에너지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경우 주택 소유주나 기업주에게 처리로 대출해준 뒤 이들이 전기요금을 매달 납부할 때 월 상환액도 함께 감도록 한 제도임.
- 또한 이 법안에서는 발전소를 건립할 경우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원스톱 부지 선정 위원회’를 만들어 발전소 건립 허가과정을 주관하도록 규정함. 이밖에 건립 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자금을 제공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유관 전문가와 변호사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 발전소 건립 과정에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를 보장함. 환경영향평가도 의무화해 주변 환경과 공중보건 개선을 유도함.

(assembly.state.ny.us/leg/?default_fld=&bn=A08510&term=2011&Summary=Y&Actions=Y&Votes=Y&Text=Y)

(www.globest.com/news/1971_1971/newyork/312827-1.html)

도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업풍경 육성지구' 지정 (도쿄)

- 도쿄都 내 농지는 식량을 생산하는 장소만이 아니라 도시민에게 전원의 풍광과 경관을 제공하고, 재해 시에는 피난장소로 활용되기도 함. 이에 도쿄都는 감소 추세인 농지를 보전하고 도시 농업과 전원이 제공하는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2011년 8월 1일부터 '농업풍경 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농업풍경 육성지구는 농지 및 농가주택 주변에 심어진 방풍림 등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지역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농업과 전원이 제공하는 풍광과 경관을 보전하는 역할을 함.
- 이 지구로 지정되면 산재되어 있는 농지를 하나의 도시계획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고, 향후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시·정·촌에서 농지를 매입해 농업공원으로 정비할 수 있음. 또한 지구 지정 과정에서 농민 및 지역 주민과의 교류가 촉진되고 이들 상호간에도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이 제도는 都 비전계획인 '10년 후 도쿄' 실행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08/20181200.htm)

도 시 교 통

10. 보행 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 보행교통 개선전략 수립 (베를린)

- 베를린市는 친환경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2004년 자전거교통 전략을 수립한 데 이어 최근 보행교통 전략을 마련함. 이는 시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개선하기 위함임.

- 市는 횡단보도 확충, 보행로 확장,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2001년부터 매년 100만 유로(약 15억 원)를 투자해 왔음. 이번에 수립된 보행교통 전략은 기존의 보행교통정책을 개선해 더욱 보행에 친화적이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임. 2016년까지 보행자 교통사고를 현재보다 20% 줄인다는 목표 아래 7개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
 - 짧은 길의 도시: 보행 친화적인 도시란 무엇보다 도달지점까지 거리가 짧은 도시임. 市는 도심, 상가, 공공시설, 녹지시설, 정류장까지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치구와 함께 도시공간의 용도 혼합과 적절한 밀도 유지를 추진함. 지루하지 않고 활기 있는 보행로를 조성하고, 도로 주변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 창문과 조명시설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 시야 등을 확보함.
 - 매력적인 도로망: 우회로를 피하고 연계성이 조밀한 도로망을 조성함.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는 법적 기준에 맞게 확충하고, 자치구와 협력해 승용차와 공공교통수단과의 교통 갈등을 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보행자의 욕구에 맞춰 많이 기다리지 않고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해 도로횡단 표지판을 확충하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는 제한속도를 강화하며, 보행자 보호구역에는 경찰과 단속원을 배치해 도로횡단 지점에서의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함.
 -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제고: 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해 좁은 보행로에 있는 장애물 제거, 도로 턱 낮추기, 연석 경사로 설치 등을 추진함.
 - 보행교통의 가치 인식: 도심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인이나 상인에게 보행교통의 가치를 인식시킴. 보행자가 쇼핑센터나 대형 상가

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에 있는 공공공간의 가치를 높이도록 책임을 부여함. 대부분 걸어서 도시를 구경하는 관광객을 고려하면 보행 친화적인 도시가 매력적인 관광도시 조성의 전제임을 인식시킴.

-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결성: 보행교통과 대중교통수단이 이상적으로 상호 보완되도록 함.
- 목표지점에 대한 방향정보 제공 강화: 보행자 특히 어린이, 장애인, 관광객이 목적지를 정확하게 찾고 가장 쉽게 갈 수 있도록 이정표, 보행자 지도, 관광노선 지도 등 다양한 방향정보를 제공함.
- 안내와 홍보 강화: 다른 교통방식에 비해 보행교통은 정보가 부족한 편이라 보행교통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안내하는 것이 보행교통 전략의 주요 요소임. 현재 市는 '베를린을 두 발로'라는 캠페인을 통해 보행교통에 대한 인식과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음.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10720.1205.351823.html)

(www.stadtentwicklung.berlin.de/verkehr/politik_planung/fussgaenger/strategie/index.shtml)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실시간 교통정보시스템 시행 (뉴욕)

- 뉴욕시는 맨해튼 지역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IT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실시간 교통정보시스템 'Midtown in Motion'을 구축해 시행할 계획임. 기존에는 카메라, 이지패스 리더, 전자 모션 센서 등을 활용해 시내 교통상황을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왔음. 새로운 시스템은 100개 이상의 전자센서, 32개 교통카메라, 23개 교차로에 설치된 이지패스 리더가 주요 교통정보를 수집해 맨해튼 2~6번가, 42~57번가에 있는 110개 블록을 중점 관리하게 됨.

- 미드타운 맨해튼은 미국 내에서 가장 혼잡한 지역으로, 거의 전 시간대에 걸쳐 교통 혼잡이 극심해 일방통행만으로는 교통흐름을 제어하기 힘든 상황이었음. 기존 교통제어시스템은 시간대별로 미리 정해진 신호체계 프로그램으로서, 급작스럽게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해 교통흐름을 일시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변수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으나 새로운 시스템은 버튼 하나로 원하는 지점의 교통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수집된 교통정보가 市 도시교통관리센터로 전송되면 교통공학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혼잡 지점의 교통신호 및 정보를 원격으로 관리해 교통체증을 완화시킴. 市는 또한 통행자가 개인 단말기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정보를 제공함.
- 새로운 시스템의 설치는 2010년 여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쳐 왔음. 현재 맨해튼 교통신호체계의 절반이 넘는 6200개소에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되었고, 2013년도까지 맨해튼 전 지역에 이 신호체계를 도입할 계획임.

(www.nyc.gov/portal/site/nycgov/menuitem.c0935b9a57bb4ef3daf2f1c701c789a0/index.jsp?pagelD=mayor_press_release&catID=1194&doc_name=http%3A%2F%2Fwww.nyc.gov%2Fhtml%2Fom%2Fhtml%2F2011b%2Fpr257-11.html&cc=unused1978&rc=1194&ndi=1)

자전거 통근자는 대폭 증가한 반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대폭 감소 (뉴욕)

- 최근 뉴욕시의 통계자료 발표 결과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자전거 통근자가 2008년 대비 62% 증가했으며, 2011년 하루 평균 1만 8809대의 자전거가 통근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2000년 대비 262% 증가한 수치임. 시는 2008년부터 시내 주요 교량과 교차로 등지에서 자전거 진출입 수를 확인하고 있음.

- 시는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으로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이 높아짐으로써 자전거 출퇴근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분석함.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됨. 전용도로가 설치되기 전인 2000년과 비교해 자전거 교통사고 비율이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www.theblodwynny.com/leslog/2011/07/city-survey-bike-ridership-jumps-at-downtown-bridge-crossings.html/comment-page-1)

(www.examiner.com/cycling-in-new-york/nyc-bike-commuting-flourishes-say-mayor-and-transportation-chief)